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초한 단편 소설 묶음입니다

차 례

- 세 형제

- 0) 이스라엘: 야곱의 뜻.....4
- 1) 르우벤: 관계의 파탄.....5
- 2) 유다: 관계의 굴곡과 회복.....13
- 3) 요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31
- 4) 이스라엘 연대기: 하나님의 계획.....55

세 형제:
르우벤, 유다, 요셉
*Three Brothers:
Reuben, Judah, Joseph*

*By 287
Aug, 30th, 2017*

0) 이스라엘: 야곱의 뜻 (창세기 25:26)

지금은 이스라엘인 야곱은 굶주린 에서를
꼬드겨 장자권을 얻었고, 더 나아가 어머니와 함심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았다. 그
대가로, 그의 삶은 평안을 잃게 된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으로부터 도망쳐,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을 일하였으나, 결혼 당일까지
라헬의 누이인 레아와 결혼하리라곤 생각치도
못하였다. 그의 두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놓고
다투었으며, 서로의 여종을 남편에게 맡기면서까지
항상 시기하였다. 야곱과 그의 가문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다. 그의 조상은 그의 아버지이자 장남
에서의 고기 맛을 들인 이삭, 할아버지이자 아내를
부정하던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에 이른다.



1) 르우벤: 관계의 파탄

르우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그의 곁에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아버지의 곁에는 늘 그의 둘째 어머니인 라헬이 붙어 있었고, 자신의 곁에는 그의 친어머니인 레아가 함께하였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르우벤은 자신의 마음 한켠이 걸려된 채 충족치 못함을 느끼곤 하였다.

그의 이름과는 달리, 르우벤은 활기찬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자신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의 무뎠직한 성격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설 수 없게 하였지만, 후에는 그의 변함없는 모습에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르우벤의 나이가 차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아들에게 집안의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였다. 르우벤은 이에 말 없이 순종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일들을 묵묵히 맡으며 살아갔다. 그에게 걸끄러운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남들이 흠 잡을 데라곤 없었다. 결과적으로, 르우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자, 어머니를 보살피는 효자였다. 자신의 하나뿐인 여동생 디나를 하몰의 자식농이 범하였을 때에도,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살피면서, 자기 동생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살육을 벌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역정을 내는 이스라엘을 보며, 르우벤은 자신 스스로의 삶이 올바르다 여겼다.

이스라엘의 가족이 에벨 망대 건너편으로 거처를 옮겼을 무렵이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라헬의 시녀인 빌하의 천막에 그의 장막을 펴, 사별의 슬픔을 달래고 있을 때였다. 그 날도, 르우벤은 변함없이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일이 생각보다 늦어져 이미 노을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림자는 늘어지듯 땅을 향해 뻗어 있었다. 해가 기울어 갈수록 그림자는 더욱 길어져만 갔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자연스레 주변의 그림자를 향하였다. 하나 둘 그림자를 따라나선 르우벤의 발길은 어느덧 집에 다다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천막까지 다다라서 멈춰선 그는 남몰래 울려퍼지는 물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르우벤의 눈길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따라갔고, 그러다 그만 그림자의 주인인 빌하의 목욕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실수였다. 아직 결혼하지 못하여, 여자의 맨몸을 보지 못한 그였다. 그는 놀란 마음에 자리를 뜨려 하였지만, 그림자를 따라 걸던 그의 발걸음은 못이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르우벤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침을 빠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빌하의 몸이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을 즈음, 인기척을 느낀 빌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신을 차린 르우벤은 행여 라헬의 여종인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까, 도망치듯 처소로 향하였다.



그 날부터, 르우벤은 그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자신의 변동 없던 마음을 빌하로 채워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빌하의 몸을 그리던 그의 마음에 성적인 욕심이 흘러나왔다. 이 마음이 계속되다 보니, 예전에 가슴 깊이 묻어 두었던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스며들었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슬픔과 더불어 장자이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서러움이 겹치기 시작하니, 그가 막으려 해도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슬픔이 격앙되니, 어느덧 그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잡았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모자라서 자신의 어머니께 드리려 땀 자귀나무도 뺏아갔던 질 낮은 여자의 시녀와 어울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온갖 생각이 뒤섞여 답답해진 르우벤은 잠을 청하였지만, 눈을 감으면 자신의 눈에 사랑스레 보였던 빌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가슴에는 어느덧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달빛 하나 없어 더욱 어둡고, 아무도 없는 듯하여 더욱
고요하던 늦 밤에, 르우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몰래
빌하의 처소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막 잠들려 하는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그가 조심스레 말하였다.

“조용히 하거라.”

빌하는 조용하지만 거친 남성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곧 그 목소리의 주인이 르우벤임을
깨달았다. 자신을 안으려 하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그녀는 사태를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었다. 두려운
마음에, 빌하가 간절히 속삭였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이러시면 아버지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을 무시하듯, 그녀를 잡고 있던 르우벤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끓는 욕정을 주체하지 못한
르우벤은 결국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말았다. 그
와중에도, 그의 튀틀린 마음은 온갖 변명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이 일이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복수라 여겼다. 모든 일을 아버지의 탓으로 여긴 모든
일이 끝나고, 르우벤은 제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이
벌인 최악에 자책하며, 울며 떠는 빌하를 남겨둔 채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얼마되지 않아, 이 소식이
이스라엘의 귀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종들에게 붙잡혀
오면서, 아들은 난생 처음 느끼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아버지의 처소에서 쫓겨나려나, 어떤 무거운
처벌을 당할까 전전긍긍하던 르우벤의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저 서 있었을 뿐,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괴로운 기색을 띄우곤,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이었다. 어이없게도, 그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자 종결이었다. 르우벤은 그 후에도 여느때와 다를바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고마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첫 유산인 르우벤은 예전처럼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살아갔다. 하지만, 그 둘이 다시 말을 트기까지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르우벤은 아버지의 주선으로 만난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었다. 자식을 키우면서 그는 더더욱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섬섬하지만 아버지 이스라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겸손을 배운 르우벤은 동생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할 때도,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를 중보할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빌하의 사건 이전보다 더욱 고요하였다. 낮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가족들을 돌보았고, 쉴 때 쉬고, 먹을 때 먹을 수 있었다. 자신이 한 짓에 비하면, 지금 주어진 삶은 르우벤에게 있어서 축복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였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려 하였다. 자신의 동생들이 요셉을 해치려 하였을 때도, 어리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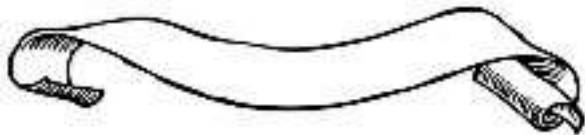
짓이라며 말려 막았던 이도 그였다. 그래, 그 날만 아니었다면, 그는 예전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으리라. 동생들이 질투에 눈이 멀어 요셉을 해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생활은 예전처럼 평안하였으리라. 아니, 마침 자신의 가족에게 일이 생겨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곁을 잠시나마 떠나지만 않았더라도, 그의 삶은 한층 가벼웠으리라. 아니, 가증스런 유다의 꾀에 넘어간 동생들이 요셉을 상인 무리에게 팔지만 않았더라면, 그래서 자신이 몰래 구덩이에 다시 돌아와 요셉을 구해 아버지께 보냈더라면, 그랬더라면, 어쩌면, 아버지와 의 관계도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온갖 생각이 뒤섞인 채, 르우벤은 자책감에 텅 빈 구덩이를 일그러진 눈길로 쏘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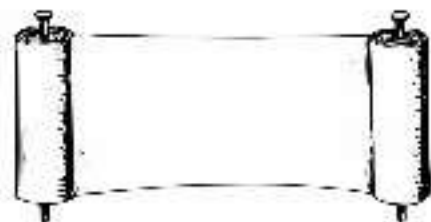
르우벤은 동생들이 한 짓에 치를 떨었다. 동생인 요셉을 위하여, 더 나아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었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방정맞은 동생들은 아직 모르리라.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의 동생들에게 소리쳤다.

“그 아이가 없어졌어!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나?”

르우벤에게 그의 동생들이 한가지 꾀를 내었다. 그들의 교활함에 화가 치밀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긴 그는 동생들 말처럼 요셉의 색동옷을 찢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 그 옷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동생의 찢긴 옷을 보여 드렸다. 이스라엘은 아들의 색동옷을 알아보고, 이에 울며 몸져누웠다. 그의 자식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해 보려 하였으나, 누구 하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 그건 르우벤도 마찬가지였다. 요셉을 따라 죽겠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저 사람과 가까워야 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또한 너무 늦었음을 자각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스라엘과 요셉처럼 꾸밈 없고 숨김 없이 살아야 하는 사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좋은 싫든 거짓을 숨긴 채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현실이 그의 실낱같은 희망을 무너뜨렸다. 마침내,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구멍이 생긴 사실을 직시한 그는 아버지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까? 어째서, 아직도 자신의 죄의 댓가가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단 말인가? 서러움과 두려움이 다시 겹치면서, 르우벤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더욱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 버렸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창세기 49:3, 4)



2) 유다: 관계의 굴곡과 회복

유다는 멍청하게 살아가는 첫째 형을 보며 혀를 차곤 하였다. 동물이 발정날 때처럼 몸이 끓어올랐다면, 일할 때 몰래 다른 마을 매춘부를 찾아가면 그만이지, 그런 바보짓을 저지르다니! 자신의 머릿속으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유다는 르우벤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책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그의 행동은 마치 유다 자신의 타산적인 마음을 대변하는 것만 같았다.

뒤틀린 일을 숨길 줄 아는 비상한 머리, 사람을 꾀는데 타고난 그의 언변은 항상 유다에게 드러나지 않는 자신감을 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받아들여 관찰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바꿀 줄 아는 남자였다. 자신의 꾀로, 꼴도 보기 싫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사람 역시 유다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여겼다. 단 하나, 아버지만 빼다면, 유다는 자식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싫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요셉의 찢긴 옷을 안으며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젖을 찾는 아기와 다를 바 없었다. 처음에는 그 모습에 요셉의 모습이 겹쳐 자신도 마음이 약해졌으나, 하루 이틀이 지나니 지금은 아버지의 우는 소리조차 지겨워졌다. 너무나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유다는 자신이 살기에 이곳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에 사는 교우의 입으로부터 동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다는 자신이 교류하던 이방인 친구의 제안을 별다른 고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짐을 떨쳐버리기에 좋은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아버지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울고 있는 아버지 곁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몸종이던 실바가 그를 돌보고 있었다. 며칠동안 음식엔 손도 대지 않아 지칠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

“내 주여,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세요. 그런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내 주로 인해 근심하는 다른 아이들이 눈에 밝히시진 않으십니까?”

“뭐라고?! 지금 내가 보낸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너는 내게 이 일을 벌써 잊으라 하는게냐? 자기 자식이 아니니 그리 쉽게 얘기가 나오겠지…날 좀 내버려 두거라!”

실바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천막에서 나가는 어머니의 몸종을 보며, 유다는 자신이 온 목적도 잊고 아버지에게 말을 던졌다.

“어머니셨더라면, 지금 아버지처럼 마음이 좁은 행동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편협한 생각부터 떠오르셨는지 궁금하군요.”

이스라엘은 초체한 얼굴을 들어, 유다를 쏘아보며 대답하였다.

“저 아이의 마지막 말 때문에 그렇다. 내가 요셉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여 이려고 있건만, 다른 자식 애기를 하다니! 내 심기를 건드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나를 희롱하는게 아니면 무어겠느냐? 죽은 네 둘째 어머니는 이런 것에는 지혜로웠건만...”

유다는 혀를 찼다. 그는 그의 뱃속에서 올라오는 악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자기 눈 앞에 있는 자, 자신의 소중한 것만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이기적이란 생각 뿐이었다. 유다는 그에게 그동안 깊숙히 간직하고 있었던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요셉의 어머니만큼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시긴 한 겁니까? 요셉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지금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신경써야 될 것 아닙니까!”

격앙된 이스라엘은 유다의 말에 바로 맞받아쳤다.

“네놈은 죽은 동생을 위해 애통하는 나를 잠시도 내버려두지 않는구나! 네가 나와 어떠한 일이 있길래, 이리도 이 아비와 동생을 미워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이 집에서 너를 먹이며 키워왔다. 네가 나를 적대하는 원인은 필시 너의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의 욕심일 것이다!”

이 지랄맞을 늙은이가! 유다는 터질듯한 목구멍을 막아, 이스라엘의 곁을 떠나겠다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삼켰다. 이해가 가질 않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늘에 계신 분의 복을 받는 사람이 인자하지도 않을 뿐더러,

독한 인성을 가진 옹고집이라. 유다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를 향한 악감정은 더욱 커져갔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갔다.

빛을 가리우는 밤과 빛이 새어 나오는 새벽 시간대 사이에, 유다는 몰래 자신의 짐을 꾸렸다.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가 아닌, 자신이 그들을 보기가 싫어서였다. 원망과 짜증만 남은 이곳에선 더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존귀한 존재를 따르는 집안임에도 사람을 편애하고 자기중심적인 아버지에게 얽매이기 싫었고, 지 아비를 닮아 말 같은 정력으로 아비의 여인을 탐해놓고 착한 척하는 첫째 형도 볼썽사나웠다. 유다는 또 다시 이 모든 일에 영증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더욱 빨리 짐을 꾸렸다. 그는 짐을 다 챙기자마자, 가족에게 전할 서신을 자신의 천막에 남겨놓고, 서둘러 그의 친구인 히라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다.

집을 떠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발이 아플 때까지 걷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쉴 자리를 모색하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철 때까지 걷다, 힘이 들어 잠시 쉬려고 앉은 땅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둥산을 중심으로,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땅에는 양 떼를 먹일 풀 한포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텅빈 광야 한 가운데 자신의 억눌린 마음이

폭발하면서, 유다는 자신이 이해 못하는 불공평한
하늘과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당신이 계시다면 어디 한번 나와 보시지!

**저런 사람을 내 아비로 주고
내가 그리 바라던 아비의 은총은
저 시덥잡은 동생 농한테나 주다니!
그러면서 날 되먹지 못한 장자와 막내 사이에 꺼 놔?!**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아버지 같으니라구!
너를 저주하지 못하면 내가 죽으리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농 아내의 반만이라도
내 어미를 위했더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았을거다**

**절대로 너처럼 살지 않을테다!
저 하늘의 별들 하나 하나에 두고 맹세하건데,
털 옷 한 끝이라도 네 농처럼 살게 된다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테다!”**

말을 마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유다는 그대로
숨을 고르며 쉬다가, 어둠이 가실 무렵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다시 길을 걷다보니, 야영을 한
흔적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였다. 필시 이 흔적은 노예
상인들의 흔적이라. 불에 그을린 자국을 보며 요즘은
이 일이 성행인가 생각하던 순간, 그의 마음에 언짢은
기분이 들며,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던 요셉이
떠올랐다. 코피를 흘리며 눈물범벅이 된 불쌍한 얼굴이
다시 생각나니, 한껏 좋아진 기분이 다시 언짢아졌다.

‘그놈은 내 동생이 아니었어…’

쓰라린 자신의 마음을 애써 부인하며, 유다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유다의 뒤로 해가 뜨면서, 그가 향하는 길을 축복하듯 비춰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앞은 그의 그림자로 빛이 가려져 있었다.

유다는 아돌람 사람 히라와 함께, 아버지의 거처와 떨어진 곳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는 그곳에서 ‘수아’란 가난한 사람과 친분을 다지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유다가 걷는 길은 탄탄대로였다. 뛰어난 수완으로 재산은 넉넉하였고,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한 여자만을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였다. 주변에서 뭐라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유다 자신은 지금 이대호가 좋았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후회란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 와중에 태어난 첫째 아이는 그에게 있어 어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행복이었다. 유다는 아들의 이름을 ‘에르’라 지었다. 뒤이어, 그의 아내가 다시 아들을 낳으니, 기쁨이 넘쳐 아이의 이름을 ‘오난’이라 지었고,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 행복이 계속 되기를 빌며, ‘셀라’라 이름 지었다. 아이들은 유다를 닮아 당찬고 거칠 것이 없었다. 그나마 늦둥이인 셋째가 다른 두 형보다 여리고 순하였다.

시간이 흘러, 에르가 혈기왕성한 청년이 되었을 무렵, 유다는 아들의 혈기를 바로잡아 줄 처자, 그를 좀 더

바른 길로 이끌어줄 여인을 모색하고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최근 에르의 행동은 점점 자신의 손을 벗어나고 있었다. 아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 에르는 맡은 바를 잘 수행하였지만, 그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만을 사랑하였다. 그의 방식은 다른 이들에게 무자비하였다. 에르는 약삭빠른 머리로 장사의 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갔고, 만약 그러지 못 한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그리하곤 하였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외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에르로 인하여 이를 갈았다. 이런 소식이 하나 늘 때마다, 유다는 더욱 애간장을 태웠다. 그의 첫 힘줄은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하였으나, 악한 쪽으로 더욱 빼어났다. 이 악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유다의 마음은 조금해져만 갔다. 아들의 의사는 물을 틈도 없을 정도였다. 마침내, 그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찾아 내었고, 그녀를 에르와 결혼 시켰다. 그러나 아들이 변화되길 기대하던 유다의 바람과는 달리, 에르는 요지부동이었다. 아니, 그는 더욱 비뚤어졌다.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한다 생각한 에르는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 이 사실은 부부의 관계 가운데 어렴풋이 낚새를 채 다말을 제외하곤, 유다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르의 악함을 보셨고, 그의 죄를 심판하셨다. 그는 한밤중에 자신의 정부를 만나러 가는 도중, 그에게 앙심을 품던 우리에게 살해 당하고 말았다.

아들의 비참한 죽음으로, 유다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다. 비통해 하는 아내를 위로하느라 그의 몸과 마음은 부서질 것만 같았지만, 그는 재빨리 이 비극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눈물을 감추고 둘째 아들을 불렀다. 오난이 아버지께 나아오자, 유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 아버지의 청을 들어다오. 네 형이 자식 없이 죽어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러니, 네가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거라. 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도와다오.”

오난은 그의 형수 다말과 동침하여,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탐하고 있었다. 자신이 아들을 낳은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형이 죽어 얻게 될지 모르는 장자의 권세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고의로 자신의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놀라 떠는 다말에게 이 일에 관해 입다물고 있으라 협박하듯 경고하였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말할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악함을 보셨고, 그의 죄를 심판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굿간에서 그가 아끼던 종마가 발정이 나 날뛰기 시작하였고, 이를 말리던 오난은 흥분한 말의 뒷발굽에 차여 쓰러졌다. 그는 자신의 침상에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그 자리에 누워 죽고 말았다.

유다의 집안은 여전히 부유하였지만, 그의 가정은 파탄나고 말았다. 두 아들의 죽음으로 유다의 아내는 피골이 상접했고, 유다는 이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그는 다말에게 셀라가 다 클 때까지 그녀의 친정 아버지 댁에서 기다리라는 기약 없는 약조를 하여 쫓아내 버렸다. 그는 어떻게든 불행의 근원이 될만한 것들은 다 치워내면서, 이 순간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랐다. 오랜 세월이 흘러, 유다의 이 모든 헛된 노력은 아내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내를 장사하는 기간이 모두 끝나고, 유다는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이 일을 찾았다. 본래 젊은 자식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제 그의 몫이 되고 말았다. 그는 셀라에게 집을 지키라 당부한 후, 덩나로 양들의 털을 깎으러 향하였다. 걱정이 되어 동행을 자처한 히라도 그와 함께하였다. 유다는 덩나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듯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그때처럼 하늘을 향해 소리치거나 누굴 욕하진 않았다.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었다. 현재, 유일하게 남은 아들 셀라만이 그의 이성을 붙들어 줄 마지막 끈이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정신차려야 한다 생각했지만, 시시각각 슬픔과 괴로움이 유다를 놓아주지 않았다. 히라도 짓눌린 유다의 마음을 아는지 가는 길 내내 침묵하였다.



그들이 에나임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다. 유다는 자신 앞에 앉아있는, 얼굴을 가린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젊은 여인의 눈을 보니, 가정과 아내를 돌보느라 잊고 있던 그의 악한 본능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그가 여자에게 다가가, 걸을 훑으며 말하였다.

“너와 자려 하니, 네 방으로 날 안내하거라.”

“그 대가로, 저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내 가축 떼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담보물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유다는 조금해진 마음에 물었다.

“어떤 담보물을 주면 되겠느냐?”

그녀가 놓치지 않고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 그리고 나으리의 손에 지니신 지팡이면 됩니다.”

그의 충동적인 행동에 놀란 히라를 뒤로 한채, 유다는 여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함께 허름한 방에 들어가 동침하였고, 그 후, 공허한 마음만 가득 안은 채 자리를 떴다.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새끼 염소를 보내 자신의 물건을 찾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히라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이상히 여긴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자의 행방을 물었고, 이 마을에 매춘을 하는 여자는 없다는 소식만 듣고 돌아왔다. 유다는 점점 망가지는 자신의 모습에 치욕감을 느껴 이 사실을 부정하였다. 유다가 히라에게 말하였다.

“그 짘 건 가져가라 그러지. 잘못하다가는 웃음거리만 되겠구먼. 어쨌건, 난 그 여자에게 말한대로 새끼 염소를 보냈으니 된거고, 창녀를 찾지 못해 물건을 전하지 못한 건 자네 탓일세.”

히라는 당혹감에 얼굴을 붉혔지만, 더이상 이 일로 올라볼가하지 않았다.

덤나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지 몇달이 흐른 후의 일이었다. 어느 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외간남자와 정분을 나누어 임신을 하였단 소식을 들었다. 유다는 피가 거꾸로 솟아, 주변에 있던 종들에게 소리질렀다.

“그년을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여라!”

자신에게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데려가고도 모자라, 이제는 바깥 사람의 아이를 배었다는 소식에 유다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무기력한

감정들은 다말의 임신 소식이 불씨가 되어 그를 불태우고 있었다. 주위에서 간곡히 말리는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런 그에게, 다말은 그녀가 불들리기 전, 전갈을 보냈다 - 지금 유다의 종을 통하여 전하는 물건들의 임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의 아기를 배었다는 내용이었다. 유다의 종이 다말의 전언과 함께, 그녀가 보낸 물건들을 주인 앞에 내놓았다. 앞에 내려놓은 물건들을 본 유다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도장, 허리끈, 지팡이가 전부 자신의 눈 앞에 있었다. 어느새 끌려 온 다말이 그에게 외쳤다.

“잘 살펴 보십시오, 아버님! 그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여태껏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삶 가운데, 이 사건은 너무나 두렵고 막중하였다. 이 일이 대낮에 자신의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다말은 묵인 채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떻게 이 아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단 말인가…그 때, 유다의 옆에 서있던 종이 어렴풋이 사태를 눈치채고, 넌지시 그에게 물었다.

“주인님, 명하신 대로 저 여인을 불태울까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무릎 사이로 고개를 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의 말은 그의 귀에 달콤하였지만, 다행히 유다의 양심이 이를 저지하였다. 기나긴 침묵이

지나고, 그가 입술을 움직여 중얼거렸다.

“…풀어주거라…”

“주인님?”

유다는 병어리가 목을 쥐어짜듯이 외쳤다.

“저 아이가 나보다 의롭다! 진작에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켰어야 했건만!…저 아이를 풀어주어라.”

다말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길은 끝까지 유다를 향해 있었다. 유다는 자신을 노려보는 그녀의 눈길을 피하였다.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보기 싫었고, 또 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에 후회가 가득찼다. 유다는 자신에게 이끌리어 불쌍히 과부로 늙어간 며느리 다말과, 그런 그녀와 하룻밤을 보낸 자신을 뜬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욕하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올려놓은 삶 전부를 무너뜨린 사실에 절망하였다. 이 모든 일이 남도 아닌, 하늘도 아닌, 온전히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유다는 사건 직후, 아무도 없는데로 가서 비참하게 울며 되뇌었다.

“난 내 아버의 삶을 부정하며 살아왔건만…결국,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욕한 모습 그대로
살아왔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 유다는 더이상 홀로 서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그의 가족과 종들에게 짐을 꾸리라 명하였다. 혼자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송들이 유다가 그의 가족과 함께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아뢰었다. 이스라엘은 절뚝거리며 그 방향으로 걸어갔고, 그 무리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발견하였다. 유다와 그의 식솔들은 모두 유다의 아버지 앞에 서서 인사를 드렸다. 인사를 마치고 고개는 든 유다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스라엘이 돌아온 아들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나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떠난 네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랐다면 아비로서 너를 도와줬을 터이나, 네가 궁핍하지는 않을진데…너의 의도를 알고 싶구나.”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같이 지내고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놀라 의심까지 하였다. 형제 중에서도 명석하여,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마저 자기 뜻대로 부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 말인가? 그는 유다를 향한 자신의 악한 의심을 떨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떠나 산지가 해를 헤아릴 수 없구나. 우리가 서로를 모르고 살아온지, 어느덧 내 증손을 볼 시간을 한참 넘겼을 터. 나는 이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앞에 너의 다짐을 고백하길 원한다. 만약 네가 주님 앞에 정결하다면, 그분께서 너를 받으실 것이요, 주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유다는 다시금 화가 살며시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돌이킬 수 없던 과거를 통해 알게 된 지혜가 함께 해주었다. 그 지혜는 유다를 도와서, 자신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겸허히 순종케 하였다. 유다는 자신의 온전한 가족 중 하나를 잡아 희생제사를 드렸다. 연기가 하늘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불타는 제물을 바라보며 유다는 만감이 교차했다. 사랑했던 아내와 더불어, 자신을 거쳐간 이들이 시시각각 그의 마음을 후벼팠다. 강박했던 아들 에르와 오난이 떠올랐고, 무엇보다 불길을 뚫고 다말이 그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유다는 다시금 자신이 죄인임을 느꼈다. 그는 바로 지금, 하늘 아래 겸손케 살아가리라는 다짐을 모든 이 앞에서 고백할 때가 왔음을 알고, 자신의 결심을 낭송하듯이 주님께 올리었다.

**“만고의 진리는 주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내 조상이 의인으로 칭함 받음 또한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이라.**

내 아버지를 알게 되며 살터,

**의인의 근본은 힘과 부가 아니요,
믿음으로 호출하는 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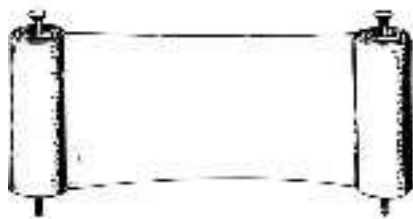
이제 나도 그 삶을 인정하며 살아가리니,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리이다.”

그 뒤로,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한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먼저, 유다는 아버지의 모습을 돌이키며 살아갔다. 주님의 지혜가 유다의 눈을 열어, 자신과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불쌍하여, 아들은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곤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큰 틀 하나를 바꿀 결심을 하였다. 그는 그 뒤로부터, 아버지 앞에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빵을 뜯는 것에서부터 일하고 잠들기까지, 아들은 아버지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그의 삶을 남김없이 나누었다. 그런 유다를 바라보며, 이스라엘도 자신의 아들을 신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들에게 하나 둘 자신의 일들을 말기기 시작하였고, 유다는 그 신뢰에 걸맞게 일하며 같은 신뢰로 보답하였다. 서로가 숨기는 일이 없어지면서, 그 둘의 눈이 서로 마주치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그들의 모습은 다른 형제들과 인척들의 본이 되었다. 마침내,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그는 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자신의 옛 마음을 내려놓으며,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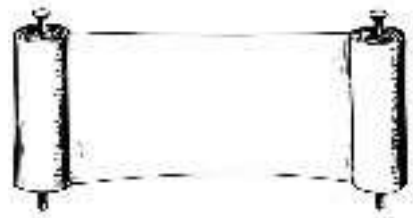
모습을 잊어갔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함을 느꼈다. 단, 유다와 그의 형들 눈에는 끝난 일인 마냥 흐릿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매듭지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요셉의 사건이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창세기 38:26)



3) 요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스라엘이 성을 내며 자식들에게 소리쳤다.

“네놈들이 지금 제정신이나? 요셉과 시므온을 잃다 못해, 이젠 베냐민을 보내 달라고?!”

아버지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았기에, 이스라엘의 자식들은 잠자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다 뺏아가려는구나! 오래 전 요셉을 잃었고, 지금은 시므온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다는 거냐? 내 아들들이라면서 하나같이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구나!”
다급한 마음에, 르우벤이 참지 못하고 아버지께 나서며 말하였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두 자식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동생을 데려올 터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형의 말에,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아직 때가 아님을 자각한 그는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마침내, 그들이 갖고 있던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는 다시 곡식을 사오라 얘기하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얼굴도 보지 못할 거라 하였습니다. 저희가 베냐민을 데려가면 모두가 살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내지 못하신다면, 저희도 갈 수 없습니다.”

“...왜 아우가 있단 얘기를 하였던 말이냐?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어찌 이리 나를 괴롭히느냐?”

유다는 이스라엘의 처절한 고백에 마음이 미어졌다. 그는 다른 형제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께 맹세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여기 있는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어 주십시오. 만약,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죄를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진실된 목소리는 아버지와 베냐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형제들 중,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유다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다른 형제들과 재빨리 짐을 싸서 애굽으로 떠났다.

베냐민과 그의 형들이 선물을 챙겨 애굽으로 향할 그 무렵, 요셉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숨을 돌리면서, 요 근래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확연히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 앞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느꼈다. 많은 생각으로 들쭉이는 요셉의 마음은 자신의 형들이 다녀간 시점에서, 자연스레 자신의 가족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옮겨갔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차디찬 감옥의 바닥을 뒹굴다 깨달았던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였던가...아니면 이 광대한 이국 땅에서 총리가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지금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만큼 주님의 일하심이 절묘하였기에,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음을 요셉은 다시 한번 되뇌었다.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 같았던 아버지의 품을 강제로
떠나 도착한 이방 땅에서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닌,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듣고 알게 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었다. 미디안 상인에게 이끌려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선 어느덧 요셉의 삶
속에서 그를 지켜주던 아버지보다, 돌아가신
어머니보다 더욱 큰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요셉은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간직하였다. 비록,
그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자신이 속해 있던 -
경호대장의 저택이었던 감옥이었던 - 곳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이 그에게 손짓하였지만, 그의
개인적인 바람은 어디로 불지 모르는 바람처럼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대신,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지껏 함께하셨던 주님의 임재를 배워 나갔고,
결과적으로는 이 경험이 그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다듬어갔다.

믿을 분은 한 분 뿐이었다. 자신을 총애하였던
보디발도, 자신의 몸을 사랑하였던 그의 부인도, 꿈
해몽을 부탁했던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도 아니었다.

때와 장소, 그 가운데서 자신을 강하고 부드럽게 돌보셨던 그분의 손길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이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자신의 것이라 얼마나 자랑스레 얘기했던가! 그 아이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음부 속에 있는 자신의 오만함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터놓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주님의 놀라우심이 어찌 이리 크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보여주신 꿈이 자신의 눈 앞에 이뤄지는 걸 보았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모래보다 많은 곡식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이 모든 걸 해몽하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즉,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이었기에, 그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다. 또한, 집에 돌아가 자신의 아내와 두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을 위로케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였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다 인정하니, 기쁨이 넘쳤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행복은 예전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리던 옛 고향집도 잊게 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요셉이 자신의 가족까지 잊은 건 아니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와 가족이 살던 목초지의 풍경이 눈에 선하였다. 그리고, 그의 눈에 선한 것 이상으로, 요셉은 자신 앞에 또렷히 자신의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때는 바로의 창고를 관리하면서, 곡식을 빌리려는 사람들을 대면하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릴 적 경험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뤄지는 것을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 가운데, 요셉만이 기억하고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인지하고, 여태껏 그들의 모자란 행동을 창조주의 은혜로 바꾸신 것도 깨달은 터였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그에게 절하는 형들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굳기 시작하였다. 곧,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요셉은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노예와 죄수를 거쳐 총리의 삶을 걸으며 익힌 지혜, 흠바닥을 기는 노예에서부터 바로의 성전을 걷는 고관들을 다스려 오던 그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었다. 예전, 자신을 상인에게 판 형들의 모습이 하나 하나 떠올랐다. 자신의 빵을 후려치며 욕하던 시므온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그나마 자신을 생각해주던 르우เบน을 조용히 지나가며, 요셉은 나머지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마저 둘러보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11명이여야 할 이 자리에 한 명이 비어 있었다. 자신의 동생이 이 자리에 없음을 깨달은 요셉은 통역관을 통하여 엄히 말을 전하였다. 어느덧, 그의 마음 속에는 상처로 빚어진 차가운 분노가 자리잡고 있었다. 요셉은 짐짓 모른 채 자신의 형들을 첩자라 몰아가며 추궁하였고, 겁에 질린 그의 형들은 그의 의도대로 자신들의 아버지와 동생을 언급하였다. 애기 도중,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에 요셉은 헛웃음이 나왔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었기에 만족하였다. 들을 말을 다 들은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네놈들이 첩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너희가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 바로의 목숨으로 맹세하니, 너희의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와 보이지 않는다면, 네놈들은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데려오너라. 나머지는 그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너희의 말마따나 내게 한 말들이 사실인지 알아보겠다.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그리하지 못한다면 네놈들이 결국 첩자였던 소리로 간주하마.”

이 협박 같은 제안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기대한 것만큼 반응하지 않았다. 가족의 안위를 우선하였기에, 이들은 총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들의 행동에 못마땅한 요셉은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라는 듯,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의 형들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런 형들을 보며 요셉의 가슴은 타들어만 갔다. 자칫 잘못하다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굶주리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다. 한시가 촉박한 마음에 견디다 못한 요셉은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을 다시 불러 재촉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목숨을 보전하거라.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이곳에서 나가 얻은 곡식으로 너희 식솔들의 허기를 면케 한 뒤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하면 너희의

말이 사실인지 밝혀질 뿐더러, 너희 또한 죽지 아니 할 것이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속이 타기는 요셉의 형들도 매한가지였다. 급한 마음에, 그들은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흘동안 전전긍긍하며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은 이 예기치 못한 일을 두고서 자신들의 오랜 죄악을 떠올렸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죽게 내버려 둔 일에 서로 자책하였고, 그런 그들에게 르우벤은 분노하여 폭언을 날렸다. 그들은 총리가 눈 앞에 있는 줄도 잊은 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셉은 귀를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와 그의 형제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온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다. 지금은 잊었으리라 생각했던 옛 설움이 복받쳐 올랐고,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 다른 장소에 숨어 서러이 울며 울부짖었다. 그 후, 요셉은 돌아와 그의 형들에게 이 일에 관해 다시 한번 당부하고, 그들의 눈 앞에서 시므온을 지목하여 포박하였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떠나기 전, 그의 시종들에게 따로 명하여 떠나는 일행의 곡물 자루에 그들이 냈던 돈을 넣어두라 명하였다. 그 외에, 감옥에 갇혀 쇠약해진 자신의 형들이 온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가는 길에 요기할 먹거리도 함께 챙겨두게 하였다. 그 날,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총리의 말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그 날 저녁 곡식이 든 자루를 확인하면서 놀라
떨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저들이 떠난 이후로, 요셉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다. 자신을 버린
저 형제들과 연합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격앙된 자신의 마음속에 그들을
저버리고 아버지와 동생을 데리고 오려는 마음 역시,
시시각각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마음의 근심이 몸에
나타나니, 요셉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이 아니었다. 요셉의 양심이
그의 마음을 더욱 짓누르기 시작했다. 돌이킬수록 그의
감정적인 행동이 지혜롭지 못했음에 후회가 막심했다.
아버지께서는 별 탈이 없으실까? 형들을 감옥에 가둬
지체된 시간 동안, 굶은 가족 중 누구를 해치진
않았으려나? 자신이 가둔 시므온의 가족은
평안할런지...이런 혼란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행동으로 빨리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과연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하여
어느 것 하나 정리가 되지 않는 불안 속에서도, 그는
기어이 하나님을 기억해 내었다. 어째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나에게 인도하신 걸까? 내 조상과
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 둘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접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예언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끝에 맺어져야 할 열매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자신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감정과 모든 고민이 물에 씻겨나가듯이 명확해졌다. 과연, 모든 걸 이루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 했다는 생각에 가책을 느낀 요셉은 어느덧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나를 이곳까지 이끄셔서 당신의 일에 수고케 하신 주님. 내 못난 모습을 단련하시고, 주께서 주신 삶을 통하여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저의 길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자신이 그들에게 저지른 죄는 생각도 않고, 그들의 악함을 스스로 심판하려 했습니다. 종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결심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음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사오니, 이제 당신의 종을 어여삐 여기시사 저희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평안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던 찌꺼기 같은 옛 생각을 내려놓았다. 그 뒤로, 시간은 쏠살같이 지나갔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행하실 것들을 살피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내린 이 결정이 요셉 자신을 회복할 것이라고는 생각치도 않고 있었다.

눈부신 햇살과 일렁이는 풍경이 눈을 찌던 아침,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선사할 짐들을 싣고 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터질듯한 가슴을 억누르며, 청지기를 불러다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극진히 대접할 것을 명하였다. 이제, 요셉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그분이 보이실 기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며, 또 한편으론 기대하며 자신 앞에 절하는 형제들을 맞아들였다. 오랜만에, 형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순간이었다.

“내 의심으로 여기까지 먼 길을 돌아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한 그들이 배불리 먹었기를 바란다.”

“어르신의 자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종들은 그저 어르신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를 주인의 집으로 부르시고 이리 식사까지 대접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안하라. 그나저나, 내가 너희들을 옴아멜 동안 집안에는 별일 없었더냐? 그, 전에 그대들이 내게 말한 나이드신 아버지는 평안하시느냐? 그분께서 아직 살아계시더냐?”

부드러운 총리의 음성에, 한결 불안이 가신 요셉의 형제들은 고개를 들어 질문에 화답하고 다시 절하였다.

**“어르신의 종이신 저희의 아버지는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함창하듯 총리에게 아뢰자, 요셉의 마음에 있던 불안 또한 한결 가셨다. 그는 안도감에 자신의 형제들을 둘러보다, 마침내 베냐민의 얼굴에 다다랐다. 떨리는 입술과 마음을 가라앉히며, 요셉은 침을 삼켰다. 그가 동생을 바라보며 자신의 형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가 자네들이 내게 말한 막내 아우더냐?”

아아, 옛되고 부드러운 동생의 얼굴에서 아버지와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사랑스런 얼굴을 보며 함께 자라지 못하였다니…그는 막힌 목을 억지로 뚫으면서, 자신을 보며 긴장하는 동생에게 간신히 말을 이어나갔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이 말을 마치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요셉은 바로 뒤돌아 자신의 한 방에 들어가서, 입을 막고 한참동안 울었다. 이렇게 보고 싶었건만, 무엇이 잘못되어 그 많은 세월을 서로 떨어져 살았어야 했던가…누군가가 더 잘못하고서를 떠나, 과거에 서로의 마음속에 있던 시기와 오만이 자신들의 사이를 갈아먹어왔음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이미 결심한 이상, 주님의 일하심을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세수를 하여 눈물을 가렸다. 그는 걱정하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그를 걱정하는 형제들에게 서둘러 돌아갔다. 갑자기 사라진 총리를 의아해하며 기다리는 그들의 앞에 다시 선 요셉은 자신의 종들에게 명하여 상을 차렸다. 베냐민을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의 나이순을 따라 앉게 되었고, 그들은 이 기이한 일에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총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너희의 결백함을 푼 날이고 내가 이에 기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 사양 말고 즐기도록 하거라.”**

요셉의 명에 따라, 총리의 종들이 그의 상에서 음식을 날라 각 사람에게 전하였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다섯 몫이 많은 음식을 주면서, 자신의 동생을 향한 사랑을 미약하게나마 나타내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맘 편히 취하고, 시간가는 줄 모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와중에, 요셉은 자신의 동생이 그의 음식을 형들과 나누고, 또한 그들이 거리낌없이 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였다. 자신의 몸이 어린 시절, 자신의 마음이 어렸던 그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의 형들 주름 사이에 보이는 부드러운 얼굴과 그에 화답하는 동생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는 한편으론 기쁘고, 또한 한편으론 후회 가운데 슬퍼하며

자신의 손아귀에 남아있던 술잔을 비웠다.

오늘,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던 식사시간은 너무나 각별하였다. 처음에는 다들 눈치를 살피긴 하였으나, 다같이 모여 즐겁게 먹고 마셨음은 틀림없었다. 그 사실에 요셉은 만족하여 자랑하듯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날이 어두워져 집안에는 종들이 햇불을 붙여놓아 불빛이 버둥거리고 있었다. 타오르는 불씨를 바라보니, 그의 마음에 예전 형들이 자신을 대하던 모습과 오늘 자신의 동생을 대하던 모습이 교차하였다. 요셉은 흠칫 놀라, 몸을 피하였다. 그 자신도 몰랐지만, 어릴 적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끔찍히 아끼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생존과 더불어 장성한 동생의 얼굴 덕에 잊고 있었지만, 혼자 남게 되니 다시 형들을 향한 의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따스한 바람이 멎고 저녁 이슬이 맺힌 듯, 그의 마음이 떨려왔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되뇌이던 도중, 요셉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집을 관리하는 시종을 불러, 자신의 은잔을 건네주며 몇마디 명하였다. 충실한 종은 그 즉시 주인의 말을 수행하러 바빠 발을 움직였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종을 요셉은 지켜보고만 있었다.

자신의 면전에서 절을 하는 형들과 동생을 요셉은 지켜보고만 있었다.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이 일을 통하여 당신들의 참모습을 보리라. 이 마지막 일을 통하여, 자신의 동생 앞에 친절하던 형들의 참된 본성을 똑똑히 알 수 있으리라. 만약 그들이 자신의 동생을 포기한다면, 자신은 베냐민을 데리고 살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들 가운데 후회와 참회를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악하다면 다음에 볼 그들의 모습이 마지막 만남이 되겠지. 그렇게 된다면, 후에 몰래 아버지를 불러 모시고 살 수 있을거고. 하지만 다시는 자신의 형들을 볼 수 없겠고,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어긋난 일이라. 주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시고, 내 악한 마음을 부정하여 승리하시리라. 오 주님, 저들과 주님의 충을 도우소서.

베냐민의 형들은 곡식이 담긴 자루를 만지면서, 요 근래에 있었던 기이한 일들을 상기하였다. 대체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쓸모도 없는 이 기적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희롱하셨던 건가? 그들의 이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누구보다 총리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배불리 먹었던 베냐민만이 홀가분한 마음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 형들과 더불어 총리의 저택에 머문 일을 자랑하고픈 생각 뿐이었다. 이렇게 서로가 애급에서 있던 일들에 관하여 골똘히 생각하며 집으로 향하는 도중, 그들은 총리의 관저에서 마주하고 얘기 나누기도 했던 시종의 우렁찬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형제들에게 호통쳤다.

“너희는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는단 말이나? 그것은 내 주인께서 마시거나 점을 칠 때 쓰시는 은잔이다. 왜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요셉의 형제들은 이 갑작스런 시종의 등장애 당황하였지만, 누구보다 당당히 그들의 결백함을 외치었다 -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애급 총리의 은잔을 겁도 없이 훔친단 말인가? 형제들은 한 사람씩 곡식이 담긴 자신의 자루를 풀어놓으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려 하였다. 그들의 제안에 동의한 시종은 차례로 돌아가며, 그들의 자루를 하나 하나 검사하였다. 잠시동안 시종의 바빠 움직이는 손길 외에는, 그 일대가 침묵한 듯 정적이 흘렀다.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리의 시종은 마지막 자루의 검사를 거의 끝마쳐 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형제들이 안도하고 있을 그 때, 뜬금없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들리었다. 자루의 주인을 확인한 시종은 그 즉시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명하였다.

“저 자를 붙잡아라.”

시종이 명한대로, 그의 주변에 있던 호위병들은 베냐민을 붙잡았다. 자신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걸 똑똑히 목격한 베냐민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아니아…이건, 아니예요, 나, 난 아니예요…”

그는 호위병들이 자신을 붙잡아 포박할 때가 되어서야, 급박한 마음에 형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난 아니예요! 형님, 제가 안 그랬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을 본 그의 형들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다. 방금 전까지, 웃고 얘기 나누던 순간이 꿈만 같았다. 대체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다. 더러는 베냐민을 탐욕에서 지키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 여기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되묻는 이도 있었다. 요셉 없이 아버지와 수년을 지내면서 잊혀진 듯 보였지만, 자신들이 젊을 적 저지른 악행은 지금에서야 엉뚱하게 열매를 맺고 있었다. 고통스럽기는 유다도 마찬가지였다. 애굽 총리의 명으로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은 그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때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자신의 무거운 죄가 자신을 옴아매는 날이 찾아온다면, 그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리라 다짐했을 터였다. 현대, 베냐민이라니! 베냐민이라니!… 일그러진 유다의 눈에 베냐민이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겁에 질려 물먹이는 베냐민의 눈에서 그의 형
요셉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이 걸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잡혀가는 베냐민을
응시하며, 유다는 마음 속으로 외쳤다.

**‘하늘이다! 하늘이로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잊지 않으시는도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한 가지 뿐이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을 붙잡은
총리의 병사들을 뒤따라, 다시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총리의 저택에 다시 들어서면서, 베냐민은
어제는 그 위용에 놀라 바라보았던 이 집이 이대로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였다. 이제, 이 이방
땅에서 영원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며 살아갈거라
생각하니 눈 앞이 깜깜하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의 주변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총리의 종과
호위병들이 먼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의 뒤편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쫓아오는 그의 형들이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베냐민! 널 버리지 않오마! 걱정 마렴!”

“베냐민…두려워 말거라.”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눈을 다시 한번 쳐다보려는
순간, 양 옆의 호위병들이 베냐민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힘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형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총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절하였다. 자신에게
절한 형제들을 험악한 얼굴로 훑어본 요셉은, 마음을
다스리듯 크게 숨을 내쉬었다. 다시 총리의 앞에
무릎꿇은 형제들은 두려움과 겁에 질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소리쳤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네놈들은
나 같은 사람이 점술로 내 물건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꿈에도 몰랐겠지?”**

베냐민과 더불어 다른 형제들이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몰라 찢찢매는 가운데, 유다가 조심스레 입을 떼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상황에 저희들이 총리께 무슨 할 말이 남았겠습니까? 어떤 변명을 하겠으며, 어찌 저희의 무고함을 밝힐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저희와 어르신의 은잔이 나온 자루의 임자 모두가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말에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을 차감게 일관하며, 요셉은 말을 이어 나갔다.

“난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다. 내 은잔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만이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돌아가거라.”

형제들은 앞이 막막하였다.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그 다음 일은 너무나 자명하였다. 유다는 터져 나올 것 같은 절규를 뿌리치며, 앞으로 구르듯이 나아갔다. 요셉은 그의 행동에 적잖이 당황하였지만, 정신을 차리고 유다를 막아서려는 호위병들을 손짓하여 물러서게 하였다. 앞을 막던 사람들이 물러나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 말아 주십시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때에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늘그막에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남아 있기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판 유다와 총리가 된 요셉의 두 눈이 서로 마주하였다. 요셉은 그를 관찰하여, 교활하였던 그의 옛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이상한 노릇이었다. 자신에게 열변하는 유다의 눈에, 숨김이나 거짓은 존재치 않았다. 진실된 유다의 눈과 입술을 요셉은 믿기지가 않아 계속 쳐다보았다. 총리와의 눈길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유다는 계속 말을 이어 나갔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며 얘기하는 유다의 아버지 이야기에 요셉의 가슴도 미어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형들을 전부 바라보았다. 평생의 원수라 여기며, 자신의 동생을 해할 것만 같았던 그의 형들은 동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 그들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하였고, 또 비굴하였다. 요셉은 저들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았다. 그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총리 앞에서 베냐민을 변호하는 유다의 눈에선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잃으며 깨달은 아버지의 아픔은 유다 자신의 것이었다. 유다는 동생을 팔아 아버지께 평생의 상처를 남긴 자신의 가책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아버지를 향한 연민이요, 하늘을 향한 고백이었다. 그의 언성은 더욱 처절해져만 갔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통역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흐르는 유다의 눈물을
보며 요셉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가 그의 형들로부터 진실로 원했던 것,
자신의 양숙이던 형제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것, 그것은
그들을 통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그는 마침내 뜬
눈으로 자신의 형들을 바라 볼 수 있었다. 요셉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벅차올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하늘이다! 하늘이로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행하셨다!
내가 지금 그걸 보게 되다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이 마땅함이라!'**

요셉은 자신의 악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하였음에 기뻐하였다. 주님께서 예전 어린 요셉을 통해 예언하신 일이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그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자신의 형제를 제외한 모든 시종들에게 물러가라 소리쳤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과 동생 앞에서 건물이 떠나갈듯이 울며 외쳤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4) 이스라엘 연대기: 하나님의 계획

요셉은 형들과 자신의 동생에게 일러, 그들의 집에 서둘러 돌아가,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살라고 전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은 서둘러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알렸다. 처음에는 혼이 나가 어리둥절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요셉이 보낸 전언과 수많은 수레들을 보고서야 그는 정신을 차렸다.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챙겨 애굽으로 갈 준비를 마쳤다. 긴 세월이 흐르고서야, 아버지와 아들은 살아서 다시 재회하였고, 그들은 서로 목놓아 울며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그 이후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곳에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생을 통하여, 신실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였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요셉은 자신이 죽기 전, 자신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유골을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져가라 명하였다. 그는 자신이 얻게 될 민족의 고향 땅을 그리며, 먼 이국 땅 애굽에서 눈을 감았다.

이스라엘 가문의 일생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적었다. 이스라엘의 장남 르우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이를 경험하진 못하였다. 유다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나,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높으신 분과 그분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 가운데 살아 숨쉬는 주님의 마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이 여정이 주님의 진실된 종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한 과정임을 알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따름이다.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은 해가 지는 애굽 길로 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그림자는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하여 뻗쳐 나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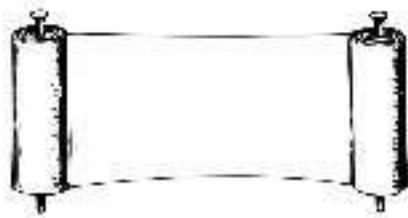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1, 2)

그러므로 보아라,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의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 때에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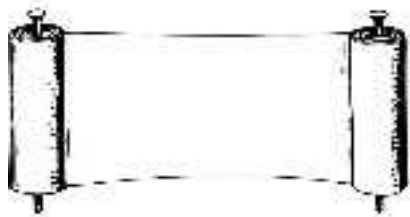
(에레미야 23:7, 8)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태복음 1:1)





Beloved,
I wish above all things
that thou mayest prosper
and be in health,
even as thy soul
prospereth.

III John 2